



제목	Converting Pers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 Tauris
발행일	2004. 5. 7.
저자	Rula Jurdi Abisaab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43
ISBN 또는 ISSN	978-1860649707

내용 요약

이 책은 이란이 어떻게 시아 이슬람이 되었는지를 연구한 책이다. 페르시아는 사파비 왕조 때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공인했는데, 이는 사파비 왕조의 합법성을 계공하기도 했지만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방어책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페르시아화의 열망이 큰 시기였다. 저자는 열두 이맘파 시아 이슬람이 사파비 왕조의 국가종교로 확정되는 과정에 지금의 레바논 이자 그 당시 오스만 시리아였던 자발 아밀 출신의 아랍계 시아 성직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사파비 왕조는 수니 이슬람인 오스만이 잠식해 오는 것에 직면하여 기존 시아 이슬람 분파를 열두이맘파로 통합하기 위해 아밀 출신의 법학자와 그들의 이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밀 출신의 성직자들은 사파비 왕조에서 사법부 관리로서, 아랍학과 종교학의 선생과 교수로서, 기도인도자로서 등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다. 특히 그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오스만과 우즈벱의 선전에 대항하고 사파비 왕조의 합법성을 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의 정부에서 쓰임을 받았다. 그들은 시아 이슬람 경전을 번역·요약하고 시아 이슬람의 유산을 전파하는 등 이란 지성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시아 지역인 자발 아밀 출신 종교학자들이 사파비 왕조의 공식 시아파로 유입되는 과정과 그들이 이란 지성사와 정치사에 끼친 영향을 유럽 언어로 다룬 최초의 연구라고 평가된다.